

비건 간편식·레스토랑 '열풍'

식품업계에 '비건(엄격한 채식주의) 열풍'이 한창이다. 식품 제조사들이 100% 비건 인증을 받은 매뉴판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열었다 여는가 하면, 대체육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비건 인구는 아직 5%에 불과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판단해 앞다투어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 대체육 사업 확대

말키트 전문기업 프레시지는 채식 브랜드 헬로베지에 대체육을 결합해 간편식 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발표했다. 헬로베지는 프레시지의 자회사 테이스티나인이 올해 초 선보인 채식 전문 브랜드다.

프레시지는 이 브랜드를 활용해 단체급식 등 기업 간 거래(B2B) 사업과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을 동시에 확장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대체육을 활용한 김치찌개 된장찌개 간편식을 선보인다. 단체급식 입장과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활용할 만한 간편식도 개발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도 미래 먹거리로 비건을 접목했다. 지난해 7월 베리미트라는 대체육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첫 제품으로 슬라이스 햄을 내놓기도 했다.

이 햄은 급식사업의 메뉴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스타벅스의 비건 샌드위치 '플랜트 햄&루콜라 샌드위치'에도 쓰인다. 이 샌드위치는 하루 평균 2000개 판매되고 있다.

◆ 비건 레스토랑 잇달아 오픈

"비건 음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한 마케팅도 활발하다. 주요 식품기업은 레스토랑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비건 식문화를 소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비건은 동물성 단백질(유제품 달걀 생



농심은 지난달 27일 서울 롯데월드몰에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키친을 열었다. 포리스트키친 내부(위)와 대체육 꼬치기 포함된 대표 메뉴 '작은 숲'.

식품업계 '비건' 선점 경쟁

프레시지 '채식 간편식' 확대

CJ제일제당은 식물성 유제품 신세계푸드, 대체육 햄 판매 늘어

농심·풀무원 레스토랑 열고

100% 비건 인증 메뉴 선보

선 가공류 등)을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의 일종이다. 그간 비건 음식은 고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칠맛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풀무원과 농심은 이 같은 인식을 깨기 위해 지난달 말 잇달아 비건 레스토랑을 열었다. 풀원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농심은 잠실 롯데월드몰에 비건 레스토랑 1호점을 냈다.

풀원은 퓨전한국식, 농심은 양식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회사 모두 100% 비건 인증을 받은 매뉴판만 구성한 것은 공통점이다. 김성환 농심 외식사업팀 상무는 "새로운 비건 식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CJ, 식물성 대체육(유) 공략 나서 우유를 대신할 식물성 음료 시장도 키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우유를 포함한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20년 431억원에서 2025년 668억원으로 연평균 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2월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데이블을 선보인 데 이어 2일 식물성 대체육 전문 브랜드 얼티브를 냈다. 이 브랜드는 CJ제일제당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면 6명이 기획을 맡아 사업화까지 이어진 것이다.

첫 제품은 식물성 음료인 얼티브 플랜트유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미국 유업 등 선진 식물성 유제품 시장은 대체육을 포함해 브랜드와 제품이 세분돼 있는 데 비해 국내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라며 "동물성 유제품을 다양한 식물성 제품으로 대체해 얼티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경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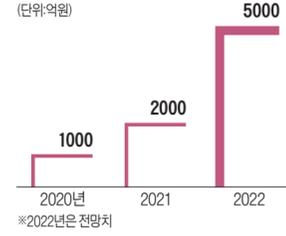
생활가전 새 전장 '음식물처리기'... SK매직 가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활가전 음식물처리기는 2008년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2008년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에 단속 대상 60개 품목 중 하나로 음식물처리기가 들어갔다. 정기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빈도가 높거나 소비자 고발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여파였다.

그 결과 한동안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음식물처리기 시장이 다시 들쭉날쭉하고 있다. 일부업체가 유명 연예인 모델을 앞세워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하며 인지도 제고에 나선 가운데 시장 참여업체도 늘고 있다.

SK매직은 오는 10일 에코클린 음식물처리기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에코클린은 업계 최초로 순환제조순조 분쇄기술을 적용했다. 공기 중 습기를 물로 바꾸는 제습기 원리를 도입해 음식물 냄새와 습기를 투명한 물로 응축해 배출한다. 삼선전지도 음식물처리기 관련 상표 등록을 마치고 출시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하는 음식물 처리기 시장



성능 개선에 연예인 마케팅 확대 품질 단속대상에서 '이미지' 변신 전문업체 이어 대기업도 진출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체 스마트카라는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에 나서는 등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배우 이서진 씨에 이어 올해 배우 공효진 씨를 새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쿠쿠전자, 웰리스, 신일산업에 이어 캐리어에어컨이 지난 4월

신제품 공개행사를 여는 등 음식물처리기가 가전업계 새 격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덕분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관련 업계는 올해 시장 규모가 최소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000억원, 2021년 2000억원에 이어 1년 만에 2.5배나 커진다는 계산이다.

2008년 30만~60만원이던 음식물처리기가 가격은 최근 90만~110만원으로 뛰었다. 일시불 기준, SK매직 에코클린과 쿠쿠 맘편한 음식물처리기 소비자 가격은 99만원이다. 웰리스 음식물처리기 AI 스탠딩은 112만원이다.

성능은 좋아졌다는 평가다. 14년 전 40데시벨 안팎이던 소음은 26~35데시벨로 낮아졌다. 처리 시간도 건조, 미생물 배양 등 방식별로 최장 10시간에서 3시간 안팎으로 단축했다.

업계 전문가는 "전기료와 처리 시간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병근 기자

"비스포크 가전, 공간·경험·시간의 확장 제공할 것"

이재승 사장, 올해 비전 제시 출시 3주년 한정판도 내놔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이 출시 3주년을 맞은 소비자 맞춤형 가전 브랜드 비스포크의 새로운 비전을 앞세워 20개 이상의 제품 라인업을 재공할 계획"이라며 "집안 어디서든 소비자의 일상과 함께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삼성전자는 미국 유명 크리에이티브디렉터인 알렉스 프로바와 함께 디자인한 비스포크 냉장고 패널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2일 발표했다.

올해 비스포크 가전의 비전으로 이 사장은 △공간의 확장 △경험의 확장 △시간의 확장을 제시했다. 그는 "가전의 가능성을 넓히는 공간의 확장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20개 이상의 제품 라인업을 재공할 계획"이라며 "집안 어디서든 소비자의 일상과 함께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목표"라고 말했다. 경험의 확장에 대해서는 "요리와 에너지 관리 등 집안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6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며 "비스포크 제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더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시간의

확장 비전에 대해서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에서 폐기까지 제품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비스포크 가전 글로벌 소개 행사인 '비스포크 홈 2022'를 통해 올해 전략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송형석 기자

'특수 코팅기술' 무선 고데기... 1년간 4500여대 팔려

▶ 으뜸종기

언일전자 'GP244'

발열판에 쿠션... 모발손상 최소화

해어 고데기는 가정마다 하나쯤 있는 미용 가전으로 꼽힌다. 언일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무선 고데기 GP244(사진)는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는 특허기술을 적용해 소비자가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린 제품이다.

GP244는 전원선이 없는 만큼 사용이 편리한 게 장점이다. 불필요한 디자인을 최대한 없애고, 제품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휴대성을 높였다. 자석형 충전 단자를 부착해 충

전도 편리하다. 110~240V 전압을 적용해 멀티플러그를 사용하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기존 제품보다 배터리 용량을 두 배로 높여 모발로 전달되는 열을 크게 늘렸다.

이 제품에는 특수 세라믹 코팅 발열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탈팅 쿠션 기술이 적용됐다. 머리카락에 직접 닿는 발열판에 쿠션 기능을 넣어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또 바이브 솔루션을 적용해 기기가 진동하면서 열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160도, 170도 2단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약 1년간 4500여 대가 팔

리며 11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언일전자 관계자는 "편의성과 뛰어난 미용 성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1995년 설립된 언일전자는 국내 1위 고데기 전문기업이다. 1998년부터 고데기 수출을 시작해 현재 세계 3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6년 제43회 무역의날 5000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해외 특허 6건 등 100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정도로 미용가전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미용업계에서는 2008년 출시한 고데기 전문 브랜드 글램으로 알려졌다. 민경진 기자

LG유플러스, 알뜰폰 시장 공략 강화

LG유플러스가 전국 1800여 개 매장에서 자사 이동통신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 망을 빌려 쓰는 25개 알뜰폰사업자의 통신 상품에 대한 고객은 LG유플러스 직영점과 대리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공 서비스는 알뜰폰 유심 개통과 명의 변경, 번호 변경, 일시 정지,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등이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U+알뜰폰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직영점 200여 곳에서 알뜰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

다. 소비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엔 서비스 가능 매장을 대폭 늘렸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알뜰폰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고객이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거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국 각지의 직영점, 대리점을 활용해 알뜰폰 이용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달만에 완성하는
부동산 디벨로퍼 실무 트레이닝

단 기간에 부동산 디벨로퍼로 성장하고 싶다면?

현업 디벨로퍼 전문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제 프로세스 기반의 실무 중심 과정입니다.

주최 한국경제신문 / 리네트웍

일정 2022.6.28 ~ 2022.7.21
매주 화, 목 19:00~22:00 (총 30h)

장소 한국경제신문빌딩 3층 한경아카데미

금액 150만원
(※얼리버드, 2인 이상 수강 20% 할인)

내용 사업성검토, 인허가, 마케팅, 세무, PF 등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신청 <https://ac.hankyung.com>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문의 02-360-4043 한경아카데미

미술품경매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가치를 보며 작품을 구입하는 법

한국과 런던 아트 월드의 10년 이상 경력의 문정민 디렉터가 미술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선보이는 특강입니다. 미술품 경매와 투자는 미적 가치, 투자 가치, 그리고 절세까지 도움을 줄 수 있어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투자와 인사이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일정 : 2022년 6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2시간 내외)
강사 : 문정민 디렉터(한인아트앤마켓, 2009년 런던 소더비 인스타튜트)
운영방법 : 한국경제신문 본사 3층 아카데미 오프라인 강의
신청방법 :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 신청
교육비용 : 5만원(VAT 없음)
등록문의 : (02) 360-4042 <http://ac.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경제지표 기반 미국 주식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지표의 세계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제지표는 기업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만큼 선행하며 강력한 지표입니다. 엑셀로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립니다. 기존에 하던 개별 기업 분석보다 Top Down 경제 지표 분석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일정 :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2시간 내외)
강사 : 조인목(공인재무설계사)
운영방법 : ZOOM 라이브
신청방법 :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 신청
교육비용 : 5만원(VAT 없음)
등록문의 : (02) 360-4042 <http://ac.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경기도 공고 제2022-5625호

자안전 등 6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 지정도면 주민 공람 공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안전 등 6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경기도지사

1. 하천 개요

하천명	하천 등급	시범	종류	수질연장 (km)
자안전	지명	확성시 비봉면 자안전	확성시 남양읍 종곡리 화성호 합류점	9.77
요곡천	지명	확성시 비봉면 청요리	확성시 비봉면 자안전 자안전 합류점	1.87
무봉천	지명	확성시 남양읍 무봉리	확성시 남양읍 황호리 자안전 합류점	2.63
남양천	지명	확성시 남양읍 북양리	확성시 남양읍 남양리 화성호 합류점	5.07
신남천	지명	확성시 남양읍 신남리	확성시 남양읍 신남리 화성호 합류점	2.10
여운천	지명	확성시 양안면 여운리	확성시 우왕읍 매향리 화성호 합류점	9.98
계		지명하천 6개소		31.42

2. 공람기간 및 장소, 도서

○ 공람기간 : 2022년 6월 3일 ~ 2022년 6월 24일(22일간)
○ 공람장소 :
구분 공람장소
경기도 경기도청 하천과
확성시청 건설과
확성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자안전, 무봉천, 남양천, 신남천, 우왕읍 행정복지센터(여운천, 양안면 행정복지센터(자안전, 여운천, 팔만면 행정복지센터(자안전, 요곡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자안전, 요곡천)

○ 공람도서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 지정도면, 토지세목 조사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시기 : 공람기간 이내(2022년 6월 24일 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주민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제출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하천과(031-8030-3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